

해명자료

2014년 8월 18일(월)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장 박동주(☎2110-1430)
방송지원정책과 차중호 사무관(☎2110-1432)

방통위가 재난망 주파수 분배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재난망 구축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최근의 일부 보도와 관련,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□ 보도요지

- 방송통신위원회가 ‘주파수 분배 원점 재검토’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난망 구축에 제동이 걸리는 등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

□ 해명내용

- 방송통신위원회는 ‘700MHz대역 중 20MHz폭을 재난망으로 우선 분배해야 한다’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, 미래부의 재난망 주파수 분배 방안에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음
- 따라서, 방통위로 인해 재난망 구축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. 끝.